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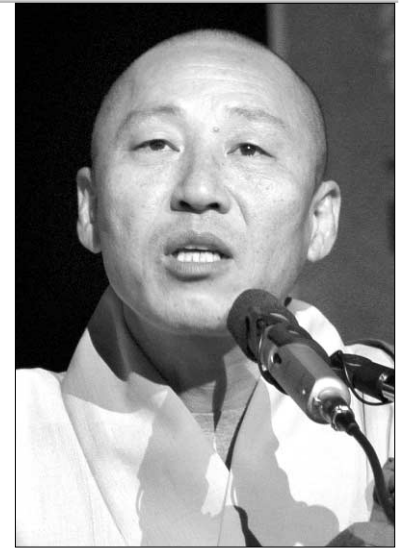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7강 : 돌아보며 어울리는 삶-밀행제일 라훌라

강사: 재연 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공동주최: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2005.11.16 / 장소: 광주 KT정보센터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처님 십대제자를 어떤 분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엮였는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료들이 빈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만나게 될 라훌라(Rāhula) 존자에 관한 기록이나 경전은 상당히 많습니다. 라훌라 존자에게 설해되거나 이름이 언급된 경전 수만 12권에 이릅니다. 대승경전으로는 <유마경>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연 스님은 매일매일 출가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이 라훌라 존자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라훌라 존자는 일러진 바와 같이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는 밀행(密行) 제일로 불리었습니다.

양구타라 니까야(Anguttara Nikāya)라는 <증지부 아함> 첫 부분에 '내 제자 가운데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데 으뜸인 라훌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라훌라 존자가 밀행 제일로 불리게 된 연유로 "공부하기 좋아하는데 으뜸인 라훌라"라는 부처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라훌라 존자의 출가 배경이나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훌라 존자가 태어난 날은 부처님이 출가하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서에는 '라훌라'라는 말은 '속박' '무엇인가를 묶어둔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훌라라는 말은 힌두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힌두 신들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들이 깨달았다는 히말라야 산으로 바다를 휘저어서 불사약을 얻습니다.

불사약을 얻자 어느 신이 약병을 들고 달아나서 먹으려고 하는데 밝은 달이 떴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약을 먹던 신의 얼굴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라후'입니다. 라후는 더 이상 약을 먹을 수가 없었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라후는 쫓겨나면서 달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나타나는 일식, 월식이 그때의 라후가 달을 갈아먹으며 복수를 하는 것이라 합니다.

힌두의 신들이 보기에 라후는 고약한 늑이 자 방해자였습니다. 청년 시달타가 자기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방해자가 생겼군'이라고 했던 혼잣말이 아이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사미승 라훌라는 짓밟은 장난으로 수행자들을 고통 먹이거나 사람들을 속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나무라지 못하고 난처해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린 사미 라훌라를 만나면 혼을 내거나 달래곤 했습니다.

<중부 니까야> '망고동산에서 라훌라에게 주신 가르침'은 라훌라가 새들에게 태어나는 전환점이 됩니다.

하루는 부처님이 망고 동산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라훌라 존자가 밭 뒤를 물을 준비했습니다. 밭을 뒤는 부처님께 예를 올린 라훌라 존자가 한 쪽에 물러나 앉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그릇에 남은 물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밭 뒤는 물처럼 하찮은 것이 일면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행자의 삶이다.

그리고는 그 물을 버리며 "이처럼 버려지는 것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행자의 삶이다."

이러 부처님이 물그릇을 얻어놓으며 "이렇게 얻어진 것이 바로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행자의 삶이다."

다시 부처님이 물그릇을 바로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텅 비어 공허한 것이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행자의 삶이다. 이것은 마치 긴 상아에 커다란 몸집으로 전쟁터에 나온 코끼리와 같다. 코끼리는 온몸으로 싸움을 하면서도 코는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 그러나 그

지 않고 남 몰래 차근차근 엄밀하게 정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라훌라 존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나한전에 모셔진 16나한 가운데 11번째 나한이 바로 라훌라 존자입니다.

경전에서 라훌라 존자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테라타파 장노에게 라훌라 존자의 계승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갖춘 까닭에 내 이름 축복 받은 라훌라 / 붓다의 아들로 법 보는 눈(法眼)을 얻었네

번뇌 모두 씻어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 / 세 가지 지혜(三明)로 불사(不死)를 보니 공양 받을 만한 아라한이라

쾌락에 눈멀고 갈망의 그물에 사로잡힌 사람들 / 망태기에 든 물고기처럼 해태(懈怠)라는 이름의 천축들에 묶여네

는 매일 매일의 출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로 세상을 보고, 이웃과 나 자신을 보는지,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보는 일, 그것과 합당하게 사유하는 일이 곧 매일 매일하는 출가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채워져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는 방학(放學)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생각 한번 내려놓아 볼까?' 이것이 출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이나 현재의 내 삶이 정말 그렇게 아등바등 해야 될 일인가? 정말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서 정말 해야 된다면 올바르게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매일 매일 출가하는 밀행제일 라훌라 존자의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정견과 바른 사유가 매일 매일 하는 출가

자녀교육때 '말도 좋고 뜻도 좋게' 표현해야

코끼리가 코를 쓰게 되면 조련사는 '이 코끼리가 이제 목숨을 버렸구나, 드디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구나'라고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라훌라에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

다. 장난으로라도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은 요즘말로 '중노릇 잘못하고 있다'는 엄한 꾸지람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때부터 라훌라 존자는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정진하게 됩니다. 그후 라훌라 존자는 아침마다 모래를 한줌 쥐고

"제가 오늘 움켜쥔 모래수 만큼 우리 스승님들로부터 고귀한 가르침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원하고 공부했습니다.

우리로 평소 라훌라 존자와 같이 공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밀행은 '남몰래 열심히 하다'는 뜻이지만 '주도면밀하게 정교하게'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장난꾸러기 라훌라가 후에 공부가 되어 밀행제일로 불렸던 연유는 드러내

나서 쾌락을 내려놓고 마라(Māra)의 사슬을 벗었어라 / 갈망의 뿌리 뽑고 불꽃 사그라들어 서늘하여라.

여기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석가족의 왕위계승권을 가진 시달타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올바른 지혜, 또 그런 것을 통해 스스로 증득한 경지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부처님 아들을 뜻합니다.

세가지 지혜는 자신의 전생에 관한 지혜, 중생들의 죽음과 내생에 관한 지혜, 업의 소멸에 관한 지혜를 말합니다. 법안이란 세상을 제대로 올바르게 보는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아는 불교적 세계관을 증득했음을 말합니다. 이로써 두 가지를 갖춘 아라한이라고 스스로 선언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라훌라 존자에게 "출가의 공덕은 그야말로 무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 내려놓은 것인데 어떻게 공덕과 이득을 이야기 합니까?"고 묻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출가나 라훌라 존자의 출가가 가질 수 있는 메시지

질의응답

문 : 부처님은 아들이 제자인 라훌라 존자를 얻어 꾸짖어 가르쳤다고 하였는데 세속에 살면서 자식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답 : 경전에서는 교육에 대해 두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꾸지람과 칭찬입니다. 시기적으로 초기경전을 보면 비교적 교조적이고 지적하는 쪽이 강합니다. 후기 대승경전 쪽으로 가면 칭찬하고 북돋워 주는 것이 보입니다. 꼭 대승경전과 초기경전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이와 풀어나가는 이의 마음입니다. 너그러우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꼭 차있다면 표현방법이 과격하더라도 이해하지만 서로 비틀어져 있던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전에서는 늘 '말도 좋고 뜻도 좋게'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가슴도 따뜻해야 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표현방식이 보다 더 정교하고 따뜻한 자비로 채워진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되겠지요. 자녀나 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따뜻한 자비심으로 대하세요.

정리 · 사진=이준영 기자

금강산림대법회

모 연 문

거룩한 삼보 전에 귀의하옵고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제방에서 수행정진하시는 큰스님들을 모시고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봉행되는 '금강산림대법회' 49일 동안 매일 영가천도기도를 봉행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초청법문이 펼쳐집니다. 대법회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우리 재가불자들은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의 향훈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유주무주 선망부모의 영가들에게는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불자님들은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번쩍이는 반야의 공지(空智)를 체득하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금강산림대법회'에 이웃과 함께 수회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마르지 않는 감로의 법과를 증득하시길 바라옵니다. 나무금강반야바라밀

불기 2549년 10월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영 조 합장

- 입재 : 2005년 12월 2일 오전 11시
- 회향 : 2006년 1월 19일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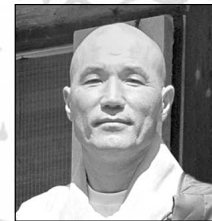
12월 2일 보성큰스님 (송광사방장)



12월 8일 수불스님 (안국선원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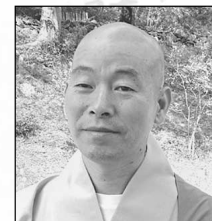
12월 15일 법흥스님 (송광사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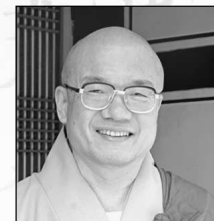
12월 23일 현묵스님 (송광사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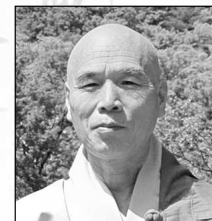
12월 29일 성관스님 (수원포교당 주지)



1월 5일 지현스님 (부산 관음사 주지)



1월 12일 지광스님 (능인선원 주지)



1월 19일 통광스님 (삼불사 주지)

승보종찰 송광사 중무소 061)755-0108 / 원주실 061)755-5301